

STX조선지회, 무기한 파업 돌입

금속 경남, 무급휴직 일방 연장 규탄대회 열어 ... “조선소 살릴 일념으로 버텨, 물러날 수 없다”



STX조선소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 무급 휴직 연장 통보에 항의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월 1일 STX조선 정문 앞에서 ‘STX조선 합의 불이행 지회 입장 발표와 무급휴직 연장 규탄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장섭 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오늘은 2년간 무급순환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는 날이다. 산업은행은 2년 전 노·사 MOU를 무시하고 다시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장섭 지회장은 “코로나 19 위기 국면에서 금융 논리만 앞세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산업은행을 이제 끝장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장섭 지회장은 “산업은행은 7년 동안 선수금환급보증과 현금보유량을 무기로 물량 감소와 구조조정을 되풀이하며 STX조선 노동자를 1/4로 줄이며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처박았다”라고 분노했다.

이장섭 지회장은 “STX조선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고, 물러날 자리도 없다”고 절절하게 외쳤다.

“산업은행, 노동자 1/4로 줄이고 최저임금으로 처박아”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일이 없으며 나누면 된다. 그래도 일이 없으면 풀리앗을 정비하는 일이라도 하면 된다. 노동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STX조선과 산업은행은 문자 한 통으로 노동자 인생을 가르는 청천벽력 같은 무급휴직을 연장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호통쳤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6월 5일 여는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최근 경남도 경제부지사들 만나 STX조선의 상황을 전하고 이번 주 중으로 답을 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긴급자금을 수혈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산업은행

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금융의 잣대만 들이대는 산업은행에 할 말을 하고 조선업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STX조선지회 조합원들은 조선소 정문 앞에 ‘무급휴직·산업은행·구조조정’이라고 쓴 현수막을 인크를 문힌 발로 밟으며 분노를 표했다. 지부는 6월 4일 두산중공업과 STX조선 생존권 사수를 걸고 경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STX조선 노사는 2018년 75%에 달하는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2년 동안 250명을 6개월씩 무급휴직한다고 합의했다. 주채권단 산업은행의 요구를 받은 STX조선 사측은 지난달 문자로 무급휴직 연장을 통보하고 조합원들이 출근하더라도 노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TX지회는 5월 26일 경남도청 앞에 천막 농성을 돌입하고 창원시 각 거점에서 선전전으로 합의를 불이행하는 사측을 규탄하고 경남도의 해결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 문화패, 금속노조 투쟁의 나침반”

전국문화패 수련회 열어,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 ... 45개 패 활동, “패원 확대 조직 가장 어려워”

금속노조 지부와 지회 문화일꾼들이 한자리 모여 2020년 투쟁 현장에서 선보일 몸짓과 노래, 풍물 등을 함께 배우고 익혔다. 연습에 몰두하던 문화패 동지들은 금방 땀에 젖었다. 문화패 조합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벌인 활동을 직접 영상물로 만들어 서로 소개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를 열었다. 지부와 지회 문화패들은 분반 교육을 중심으로 정세 강연과 지난해 평가, 연습 등을 진행하며 빠듯한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수련회 입소식에서 금속노조 투쟁에 이바지하는 문화패 조합원들의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지난 20여 년 동안 벌인 지난한 투쟁 속에서 후퇴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문화일꾼들은 선봉대가 되어 조합원들에게 힘을 줬다. 문화일꾼들은 문화예술로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라고 평가했다.

수련회 참가 조합원들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종이 위에 서로의 얼굴을 그렸다. 한 명이 먼저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의 얼굴 윤곽선을 그리면 옆 사람이 이어받아 눈과 귀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같은 조에 속한 모두가 한 명의 얼굴을 그렸다. 조합원들은 조원들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를 들고 문화패 활동을 하는

사연을 얘기했다.

공동체 프로그램에 이어 최윤정 금속노조 조직실장이 ‘코로나 19와 노동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정세 강연을 했다.

“현장에서 대오에 힘 줄 때 보람”

최윤정 실장은 이탈리아의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업장 수칙>과 네덜란드의 <임시 긴급 고용 유지 지원제도>, 독일의 <쿠어쯔 아르바이트: 조업단축을 하려면 종업원 평의회 합의와 연방고용청 승인 등을 거치도록 한 노동정책> 등 노동자 고용과 안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최윤정 실장은 “금속노조는 지금 조합원과 더불어 한국 사회 민중과 ‘함께 살자’ 정책을 대중화하고 전면화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패 조합원들은 노조의 투쟁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무대에 올릴 몸짓과 노래 등을 네 시간 가량 배우고 익혔다. 문화패들은 몸짓과 노래, 풍물로 반을 나눠 연습에 들어갔다. 몸짓패는 ‘2020년 보급 문선곡’에 맞춰 몸짓을 연습했

다. 노래패와 풍물패는 현장 창작곡과 풍물을 연습했다.

한편, 금속노조 문화국은 이번 수련회에서 ‘2020년 문화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조사에 23개 문화패, 92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금속노조에 모두 45개의 현장 문화패가 활동하고 있다. 몸짓패가 18개, 노래패 14개,

풍물패 11개, 밴드(악기연주)가 2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전후해 풍물패를 중심으로 현장 문화패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문화패는 1987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현대자동차지부 풍물패 ‘주춧돌’이다.

문화패별 인원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 3.1명(실제 활동 3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7.6명(실제 활동 6.9명), 1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3.3명(실제 활동 1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문화패원 평균 연령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7%와 32%로 가장 많고 50대가 25%를 차지한다. 20대는 한 명이었다.

문화패원 41%가 ‘패원 확대 조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활동 시간 보장 문제가 34%로 뒤를 이었다. 노조 간부들의 이해 부족이 10%나 됐다. 문화패들은 각 단위에서 시간 할애를 받지 못해 개인 휴가를 사용해 집회 공연이나 수련회 등에 참가하고 있다.

문화패 동지들이 활동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47.5%가 “현장에서 대오에 힘을 줄 때” 라고 답변했다.